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5. 6. 30(화) ~ 7. 2(목)

-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
(日本 愛知縣 名古屋市)

산업통상자원부,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한일경제협회, KOTRA(나고야무역관)

목 차

I. 개요	1
II. 개최결과	2
[첨부자료]		
1. 경제교류회의 프로그램	5
2. 세미나 주요 발표내용	6
3. 참가자 명단	8
4. 행사 사진	17
5. 보도내용	18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보고

I. 개요

1. 개최목적

-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회의로서, 일본의 최대 수송용기계 공업지대인 아이치현 나고야시(愛知縣 名古屋市)에 위치한 일본 제조현장 견학 및 경제협력 세미나,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대일 비즈니스 교류 확대 및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 개최기간 : 2015. 6. 30(화) ~ 7. 2(목) * 상담회 및 세미나 : 7. 1(수)

3. 개최장소 : 일본 아이치현(愛知縣) 나고야시(名古屋市)
ANA CROWNE PLAZA Hotel Grand Court NAGOYA
(에이엔에이 크라운 플라자 호텔 그랜드코트 나고야)

4. 참가자 : 한일 양국 자동차(완성차·부품), 기계 관련 제조업체 등
대·중소기업 약 200명

- 한국측 : 이종윤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부회장 등 83명
- 일본측 : 오오무라 히데아키(大村 秀章) 아이치현 등 113명

5. 주최 및 협력

- 주 최 :
 - 한국측 : 산업통상자원부,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KOTRA(나고야무역관)
 - 일본측 : 아이치(愛知)·한국 경제교류회의 실행위원회
*구성 : 아이치현, 나고야상공회의소, 중부경제연합회, 아이치산업진흥기구
- 협 력 :
 - 한국측 :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일본측 : GNI(Greater Nagoya Initiative)협의회,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JETRO나고야무역정보센터

II. 개최 결과

1. 개최 성과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국면전환이 필요한 가운데**, 한일 양국 자동차·기계 관련 제조업체 약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상담회 및 세미나를 통한 아이치현 지역과의 **양국 비즈니스 교류 확대 및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외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미래 50년을 향해 **한일 양국 모노즈쿠리(제조업)가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회의가 되었음
- 한국경제신문, 연합뉴스, NHK, 마이니치신문, 닛케이 비즈니스 등 국내외 언론 매체 보도를 통해 한국과 일본(아이치)간 **상호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비즈니스 상담회 및 양국 기업교류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대일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일 양국 자동차부품 산업의 무역·투자·기술협력 등 관심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함
- 상담회 개최결과

일본 참가기업	한국 참가기업	상담건수	상담 성과
19사	22사	86건	\$77,049,000

- 주요 상담 사례

1. 영진

일본기업체	상담진행 내용
스즈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품목 : 차량바디·샤시 등 부품 ○ 상담 내용 : 힌지, 더스트커버 등 스즈키 제품에 적용 가능한지 조사 예정. 설계, 용접, 도장까지 원스톱 생산이 가능한 영진에 큰 관심을 보임. 차량바디·샤시 등 큰 부품 위주로 스즈키측에서 검토 예정
후타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내용 : 회사·제품소개 및 정보교환

2. 신흥기공

일본기업체	상담진행 내용
노리타케공업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품목 : 슷돌 ○ 상담 내용 : 신흥기공의 슷돌 구매와 관련, 노리타케측의 서울 에이전트를 통해 이메일 연락예정
미쓰비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품목 : 보닛 받침 로드 등 ○ 상담 내용 : 회사·제품소개 및 정보교환

3. 덕일산업

일본기업체	상담진행 내용
도요타 BOSH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품목 : 자동차 시트 및 관련 부품 등 ○ 상담 내용 : 덕일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자동차 시트, 자동차 시트 관련 부품)을 대부분 취급하고 있음. 덕일산업의 사출단품(서스펜스, 매트, PI 등) 재료를 확인하고 가장 유사한 스펙을 갖고 이메일 연락예정
도요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내용 : 팜플렛, USB칩 등 전달받은 덕일산업의 홍보 자료를 검토후, 연락예정
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품목 : 자동차 시트, 대시 보드 등 ○ 상담 내용 : 자동차 관련 부품 미국 수출 관련 납기 및 운송방법, 비용 등에 등에 설명 및 정보교환
안도산업, 미쓰비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내용 : 회사·제품소개 및 정보교환

○ 세미나 개최결과

- ① '새로운 50년을 향한 모노즈쿠리(제조업) 협력과 공동번영'을 주제로, 아이치현 소재 경제단체·기업들과 새로운 50년을 향해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
- ② 한일 양국 자동차·기계산업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살려 제3국에서의 상호보완적 관계와 협력 가능성 및 새로운 수평적 분업관계 형성의 가능성 등을 제언

- * 일본기업 장점 : 강한 현장력·개선, 경쟁우위적 조직시스템, 협조적 노사관계
- * 한국기업 강점 : 캐치 업 정신, IT구사력, 빠른 의사결정·거점전개, 신흥국 적응력

- 이종윤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부회장을 대표로 한 한국측 대표단 일행은 지한파인 오오무라 히데아키(大村 秀章) 아이치현 지사를 예방하고,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국이 서로 강점을 찾아 이를 토대로 함께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망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부강한 동아시아로 가는 지름길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교류에서 시작되므로, 제조업 중심지인 나고야에서 자동차산업부터 양국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함

2. 종합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 종합평가

- 한국·일본(아이치)경제교류회의는 한일재단 이종윤 전무이사가 지난 2014년 10월 방한한 오오무라(大村) 아이치현지사에 아이치현기업과 한국기업간의 교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금년에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 행사로써 마련되었음
- 동 한국·일본(아이치)경제교류회의는 한일수교 50돌 행사 이후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을 기념하여 아이치현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교류회의로써 시기적으로나 한일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큼
 - 한일 관계가 경색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 200여명의 한일 양국 자동차·기계 관련 제조업체 관계자가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에 상응하는 회의가 되었으며, 양국 제조업계의 한일협력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음
 - 지한파인 오오무라 히데아키(大村 秀章) 아이치현 지사 예방이 이루어지고 한일 관계복원을 위해 자동차산업부터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및 기계부품 기업 관계자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회의가 거듭될수록 양국의 우호증진과 경제협력 증진에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동 경제교류회의에 한일 양국의 중앙정부,지자체,유관기관,매스컴 등 다수 유관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우호적인 경제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본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자동차산업의 본산지인 아이치현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 의미있는 행사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국내외 언론(한경 장세희 기자/ 니케이BP 조장은 기자)에서 동회의의 세부 행사(교류회, 지사 예방, 상담회, 세미나, 산업시찰)에까지 전일정을 동행취재하여 특집기사로 다루었고, 그 외 양국의 다수매체에도 홍보되는 등 50주년 기념행사로 마련된 동행사의 대외홍보에도 큰 성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됨

□ **향후 후속조치 계획**

- (1) 일본측 주요인사 및 협력기관 등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
- (2) 상담회 참가기업의 일본기업으로부터의 RFQ 진행여부 확인
- (3) 차기 회의 개최여부 협의 및 프로그램 선정 등
 - 아이치현에서는 경기도와의 경제교류를 추진 예정

- 별 첨 : 1.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의 프로그램 1부.
2.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의 세미나 주요 발표내용 1.
3.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의 양국 참가자 명단 1부.
4.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의 행사 사진 1부.
5.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의 회의 보도내용 1부. 끝.

첨부 1 한·일(아이치)경제교류회의 프로그램

일 자	주 요 일 정	
<6.30(화)> 10:40~11:45 15:05~16:55 17:30~18:30 18:40~18:50 19:00~21:00 21:00~21:10	<인천출발팀> - 출국(인천→나고야, KE761) - 추부국제공항→ANA호텔 - ANA호텔→CASTLE PLAZA호텔 - 나고야총영사관 주최 간담회 (CASTLE PLAZA HOTEL 4F 호오노마) - CASTLE PLAZA호텔→ANA호텔	<부산출발팀> - 국내선 출발(부산→인천, KE737) - 출국(인천→나고야, KE761) - 추부국제공항→호텔 - ANA호텔→CASTLE PLAZA호텔 - 나고야총영사관 주최 간담회 (CASTLE PLAZA HOTEL 4F 호오노마) - CASTLE PLAZA호텔→ANA호텔
<7.1(수)> 09:00~13:40 09:30~09:50 12:00~13:00 14:00~17:10 17:30~19:00	- 한·일(아이치) 기업 상담회 (5F ROSE ROOM) - 아이치현 지사 예방 (아이치현청) *관계자만 참석 - 중식 (2F ORCHID ROOM) - 한·일(아이치) 경제협력 세미나 (7F GRAND COURT) <u>* 테마 : 새로운 50년을 향한 모노즈쿠리(제조업) 협력과 공동번영</u> - 한·일(아이치) 기업 교류회 (5F ROSE ROOM)	
<7.2(목)> 08:30~09:30 09:30~11:00 11:00~11:35 11:40~12:50 12:50~13:00 13:00~13:45 13:00~14:50 15:00~15:45 15:25~16:55 17:55~19:55	- 호텔→산업시찰지1(도요타L&F) - 도요타L&F 시찰 - 도요타L&F→중식장소 - 중식(SHINES) - SHINES→산업시찰지2(ADVICS) - ADVICS 시찰 - ADVICS→추부국제공항 - 귀국(나고야→인천, KE758)	- 호텔→산업시찰지(ADVICS) - ADVICS 시찰 *11:20까지 시찰 - ADVICS→중식장소 - 중식(SHINES) - 이동(중식장소→추부국제공항) - 귀국(나고야→부산, KE754)

첨부 2

한·일(아이치)경제교류회의 세미나 주요 발표내용

■ 테마 : '새로운 50년을 향한 모노즈쿠리(제조업) 협력과 공동번영'

① 한국측 발표내용

<p>도건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한일, 신협력 시대의 동반자'</p>
<p>○ 최근 50년 간의 교역액과 한국무역에서의 일본의 위상, 한일협력사례(POSCO-신일본제철, 삼성-산요, 현대-미쓰비시자동차), 부품 소재산업의 대일무역 현황, 일본제조업의 부활, 자동차 산업의 미래(소재의 변화, 동력의 변화, IT기술의 혁신적 융합), 섬유산업의 미래, 일본계 기업의 투자사례(다이셀, 나카무라토메 정밀공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과 한일 상생협력에 대해 설명</p>
<p>구승환 교토산업대학 대학원 매니지먼트연구과/경영학부 교수 '한일 제조업의 협력적 관계 모색'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p>
<p>○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성장(품질경쟁력 향상, 글로벌 대응 가능)과 동아시아·아세안 경제권의 융합·연계로 제3국에서의 상호 보완적 관계와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새로운 분업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경제권 내, Eco System 협력과 경쟁 그리고 공존- 양국 기업의 상호 학습과 이해 증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기업 장점 : 강한 현장력·개선, 경쟁우위적 조직시스템, 협조적 노사관계* 한국기업 장점 : 캐치 업 정신, IT구사력, 빠른 의사결정·거점전개, 신흥국 적응력- 한일간 새로운 협력 및 경쟁관계 창조는 지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생산-물류의 통합적 관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접근이 가능
<p>이순형 대성전기(주) 일본법인장 'Japan-Korea Collaboration'</p>
<p>○ LS 그룹의 자동차 관련사업 소개 및 일본 자동차 관련 회사와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분담에 대해 설명하고, 한일 콜라보레이션을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음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에 공동대처, 고객의 니즈/시즈 맞춤형 대응, 수많은 잠재고객(Tier 1&2) 역할분담
<p>박진홍 (주)네오티스 상무이사 '네오티스와 한일협력'</p>
<p>○ 회사 제품(금속절삭가공)·공정 소개, 한국형 모노즈쿠리를 통한 현장개선사례, 네오티스의 한일 관계에 대해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으로부터 소재·설비를 수입하여 일본 및 해외공장에 제품을 수출

2 일본측 발표내용

무라카미 히로시 도레이(주) 전임이사 국제부문장 ‘도레이의 한국사업 전개’
○ 일본의 대표적인 대한투자기업인 도레이사의 소개 및 사업의 변천사, 한국에서의 사업전개 현황 등을 소개 - 도레이첨단소재, 도레이케미칼, 도레이인터내셔널, 도레이엔지니어링 등
마키노 미츠히로 린나이코리아(주) 대표이사부사장 ‘한국과이 연대협력 사례발표-현지생산·현지판매’
○ 린나이의 모노즈쿠리 기본철학(품질, 안전의 끊임없는 추구)에 대해 설명하고, 린나이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인 ‘현지화(Localization)’ 방안에 대해 설명
고구레 케이이치 다이도메탈공업 상석집행임원 ‘당사 한국사업 제품 제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회사개요 및 제품군에 대한 소개

첨부 3 한·일(아이치)경제교류회의 양국 참가자 명단

(1) 한국측 명단

*기업명 가나다순

No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1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부 회 장 전무이사	이 종 윤 RHEE Chong-Yun	한국측 대표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도 건 우 DO Gun-Woo	강연1
3	교토산업대학	교 수	구 승 환 KU Seung-Hwan	강연2
4	대성전기공업(주) 일본법인	법 인 장	이 순 형 LEE Sun-Hyeong	협력사례발표1
5	(주)NEOTIS	상무이사	박 진 홍 PARK Jin-Hong	협력사례발표2
6	경동정공(주)	상무이사	박 진 홍 PARK Jin-Hong	기업·대학 등
7	경동정공(주)	총괄이사	김 동 규 KIM Dong-Gyu	
8	경동정공(주)	개발부장	주 재 홍 JU Jae-Hong	
9	NIKKEI BUSINESS ONLINE	기 자	조 장 은 CHO Chang-Eun	
10	대성전기공업(주)	차 장	장 영 수 JANG Yong-Su	
11	대우인터내셔널(주)			
12	덕일산업(주)	상 무	박 종 구 PARK Jong-Ku	
13	덕일산업(주)	차 장	이 동 진 LEE Dong-Jin	
14	(주)동성하이캠	차 장	한 대 상 HAN Dae-Sang	
15	(주)동성화학	부 장	김 재 영 KIM Jae-Young	
16	(주)동성화학	과 장	이 종 원 LEE Jong-Won	
17	(주)동성화학	대 리	임 현 웅 LIM Hyun-Woong	
18	(주)동성화학	대 리	김 경 수 KIM Kyeong-Soo	
19	(주)동성화학	사 원	손 지 연 SON Ji-Youn	
20	삼보모터스(주)	이 사	류 대 선 Ryoo Dae-Sun	

21	삼보모터스(주)	대 리	최 성 수 CHOI Sung-Soo	기업·대학 등
22	세종공업(주)	차 장	김 준 영 KIM Jun-Young	
23	(주)세지솔로텍	사 장	구 태 환 KOO Tae-Hwan	
24	(주)세지솔로텍	대 리	방 영 희 BANG Young-Hee	
25	(주)신영	부 장	권 기 락 KWON Gi-Rak	
26	(주)신영	차 장	이 동 화 LEE Dong-Hwa	
27	(주)신영	사 원	김 은 지 KIM Eun-Ji	
28	(주)신흥기공	대표이사	나 기 원 NA Ki-Won	
29	(주)썬터온	과 장	안 세 순 AHN Se-Soon	
30	(주)썬터온	사 원	우 수 정 WOO Soo-Jung	
31	SMG CO.,LTD	상 무	임 규 철 IM Kou-Chul	
32	(주)영진	과 장	김 현 철 KIM Hyun-Chul	
33	(주)영진	계 장	박 상 율 PARK Sang-Yul	
34	우수AMS(주)	이 사	전 성 현 JUN Sung-Hyun	
35	우수AMS(주)	기 사	강 동 완 KANG Dong-Wan	
36	유니온메이드	사 장	박 희 원 PARK Hee-Won	
37	(주)이원정공	차 장	오 세 영 OH Se-Young	
38	(주)이원정공	차 장	김 용 원 KIM Yong-Won	
39	인지컨트롤스(주)	대 리	김 보 영 KIM Bo-Young	
40	(주)인팩	과 장	송 정 배 SONG Jung-Bae	
41	(주)인팩	사 원	성 흥 진 SUNG Hong-Jin	
42	(주)일흥	이 사	이 승 재 LEE Seung-Jae	
43	(주)일흥	과 장	사카모토 야요이 Sakamoto Yayoi	
44	(주)일흥	주 임	김 현 호 KIM Hyun-Ho	

45	조일무역(주)	사 장	이 장 원 LEE Jang-Won	기업·대학 등	
46	츄교대학(中京大学)	교 수	김 현 성 KIM Hyun-Sung		
47	(주)진양오일씸	차 장	장 기 환 JANG Ki-Hwan		
48	(주)진양오일씸	사 원	김 기 용 KIM Ki-Yong		
49	(주)PLATO	대표이사	김 성 찬 KIM Sung-Chan		
50	(주)한경닷컴	기 자	장 세 희 CHANG Se-Hui		
51	현대자동차(주) 일본법인	법 인 장	이 성 찬 LEE Sung-Chan		
52	현대자동차(주) 일본법인	과 장	전 정 곤 JEON Jeong-Gon		
53	(주)화신	과 장	양 재 호 YANG Jae-Ho		
54	(주)화신	주 임	정 선 화 JUNG Sun-Hwa		
55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총 영 사	박 환 선 PARK Whan-Seon		정부기관
56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영 사	우 병 옥		
57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전 문 관	김 영 환		
58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비 서 관	강 현 일		
59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행 정 관	이 종 흠		
60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행 정 관	유 경 원		
61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행 정 관	주 지 예		
62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행 정 관	김 정 환		
63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행 정 관	김 진 곤		
64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행 정 관	허 정 민		
6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주 무 관	송 서 현 SONG Seo-Hyeon	주최기관	
66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실 장	유 송 훈 YOO Sung-Hun		
67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팀 장	이 병 국 LEE Byeong-Kook		
68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대 리	김 성 범 KIM Sung-Bum		

69	(사)한일경제협회	대 리	서 광 현 SUH Kwang-Hyun	주최기관
70	KOTRA	전 략 본 부 장	김 성 수 KIM Seong-Soo	
71	KOTRA	일본지역 본 부 장	정 혁 CHUNG Hyuk	
72	KOTRA	팀 장	이 병 우 LEE Byung-Woo	
73	KOTRA 나고야무역관	관 장	김 현 태 KIM Hyun-Tae	주최기관
74	KOTRA 나고야무역관	차 장	유 예 진 YOO Ye-Jin	
75	KOTRA 나고야무역관	과 장	허 정 아 HEO Jeong-A	
76	KOTRA 나고야무역관	과 장	고바야시 아이코 Kobayashi Aiko	
77	KOTRA 나고야무역관	과 장	박 윤 석 PARK Yun-Suk	
78	KOTRA 나고야무역관	과 장	류 경 신 RYU Gyeong-Shin	
79	KOTRA 나고야무역관	주 임	나와테 치아키 Nawate Chiaki	
80	KOTRA 나고야무역관	사 원	안 혜 원 AHN Hye-Won	
81	KOTRA 나고야무역관	사 원	서 미 나 SUH Mi-Na	
82	한일동시통역사	통 역 사	김 혜 원 KIM Hae-Won	
83	한일동시통역사	통 역 사	이 정 남 LEE Jung-Nam	

(2) 일본측 명단

No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1	아이치현청	지 사	大村 秀章 Ohmura Hideaki	
2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국 장	井内 撰男 Iuchi Setsuo	
3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지역경제 부 장	高木 博康 Takagi Hirotaka	
4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국제과장	山田 裕啓 Yamada Yasuhiro	
5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국 제 과 과장보좌	中井 基之 Nakai Motoyuki	
6	(독)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중부분부	과 장	岩瀬 守 Iwase Mamoru	
7	(독)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중부분부	주 임	鈴木 輔 Suzuki Tasuku	
8	아이치슈쿠토쿠대학	교 수	真田 幸光 Sanada Yukimitsu	
9	도레이(주)	국 제 부 문 장	村上 洋 Murakami Hiroshi	강연
10	도레이(주)			
11	도레이(주)			
12	도레이(주)			
13	린나이코리아(주)	대표이사	牧野 光弘 Makino Mitsuhiro	협력사례발표1
14	린나이(주)	본 부 장	北田 雄一 Kitada Yuichi	
15	린나이(주)	부 장	小川 拓也 Ogawa Takuya	
16	린나이(주)	과 장	土屋 賢治 Tsuchiya Kenji	
17	린나이(주)	과 장	栗田 泰広 Awaya Yasuhiro	
18	린나이(주)	사 원	藤野 裕也 Fujino Yuya	
19	다이도메탈공업(주)	상 석 집행임원	小暮 圭一 Kogure Keiichi	협력사례발표2
20	다이도메탈공업(주)	사 원	林 愛実 Hayashi Manami	
21	(주)도요타자동직기	해외영업 실 장	松野 正三 Matsuno Masamitsu	
22	(주)도요타자동직기	주 사	淵元 厚 Fuchimoto Atsushi	

23	(주)ADVICS	상 무	小森 実 Komori Minoru	
24	(주)ADVICS	경영기획 실 장	井上 満 Inoue Mitsuru	
25	(주)ADVICS	계 장	宮下 周吾 Miyashita Shugo	
26	도요타자동차(주)	그 룹 장	竹瀝 裕幸 Takebuchi Hiroyuki	
27	도요타자동차(주)	과 장	八木 俊光 Yagi Toshimitsu	
28	도요타자동차(주)	과 장	植村 祐一 Uemura Yuichi	
29	오카야강기(주)	나 고 야 본 점 장	馬場 紀彰 Baba Toshiaki	
30	오카야강기(주)	부 장	西 邦康 Nishi Kuniyasu	
31	오카야강기(주)	부 장	川崎 潤 Kawasaki Jun	
32	오카야강기(주)	부 장	伊藤 裕康 Ito Hiroyasu	
33	오카야강기(주)	부 장	大塚 秀樹 Ohtsuka Hideki	
34	오카야강기(주)	부 부 장	佐藤 兼右 Sato Kensuke	
35	오카야강기(주)	사 원	小幡 一衛 Obata Kazumori	
36	소지츠(주)	나 고 야 지 점 장	筒井 和彦 Tsutsui Kazuhiko	
37	중부국제공항(주)	부 장	中村 治男 Nakamura Haruo	
38	중부국제공항(주)	과 장	杉原 徹 Sugihara Toru	
39	중부국제공항(주)	스 태 프	이 승 화 LEE Seung-Hwa	
40	중부전력(주)			
41	중부전력(주)			
42	도요타통상(주)	집행임원	柚原 一夫 Yuhara Kazuo	
43	도요타통상(주)	실 장	河野 篤憲 Kawano Atsunori	
44	도요타통상(주)	과 장	西村 佳奈 Nishimura Kana	
45	미쓰이물산(주)	중 부 지 사 장	相京 勝則 Aikyo Katsunori	
46	미쓰이물산(주)	실 장	川原 徹 Kawahara Toru	

47	미쓰비시상사(주)	총 지 사 장	小柳 健一 Koyanagi Kenichi	
48	미쓰비시상사(주)	팀 리 더	水野 豊 Mizuno Yutaka	
49	(주)아이키테크	리 더	加藤 成将 Kato Shigemasa	
50	아이신세이키(주)	담 당	久米 明 Kume Akira	
51	아이신세이키(주)	담 당	新美 直樹 Niimi Naoki	
52	안도산업(주)	사 장	北村 潤二 Kitamura Jyunji	
53	안도산업(주)	부 장	高橋 千吉 Takahashi Senkichi	
54	(주)이노악코퍼레이션	본 부 장	溝畑 厚旨 Mizohata Atsushi	
55	(주)이노악코퍼레이션	본 부 장	飯田 康雄 Iida Yasuo	
56	(주)이노악코퍼레이션	실 장	鈴木 裕明 Suzuki Hiroaki	
57	(주)이노악코퍼레이션	실 장	최 재 혁 CHOI Jae-Hyuk	
58	산킨네지공업(주)	부 장	伊藤 桂太郎 Ito Keitaro	
59	스즈키(주)	부 장	国枝 亮 Kunieda Makoto	
60	스즈키(주)	과 장	三木 利哉 Miki Toshiya	
61	스즈키(주)	사 원	藤間 哲朗 Toma Tetsuro	
62	(주)덴소	실 장	森 晴哉 Mori Haruya	
63	(주)덴소	과 장	三浦 一人 Miura Kazuhito	
64	(주)덴소	과 장	滝藤 隆司 Takito Takaji	
65	(주)덴소	과 장	松井 謙俊 Matsui Kanetoshi	
66	(주)덴소	과 장	川城 翔 Kawashiro Sho	
67	(주)뎡키	대표이사	助川 雄 Sukegawa Tsuyoshi	
68	도요타합성(주)	실 장	村上 隆太 Murakami Ryota	
69	도요타합성(주)	담 당	山下 恭幸 Yamashita Kyosuke	
70	도요타합성(주)	담 당	住田 公明 Sumida Kimiaki	

71	도요타방직(주)	실 장	加納 慎也 Kanou Shinya	
72	도요타방직(주)	실 장	宇野 雅史 Uno Masashi	
73	하야시텔렘프(주)	과 장	瀬川 龍美 Segawa Tatsumi	
74	하야시텔렘프(주)	과 장	川口 貴久 Kawaguchi Takahisa	
75	후타바산업(주)			
76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부 장	佐藤 謙一 SATO Kenichi	
77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상 급 Ex-pert	東條 大輔 Tojo Daisuke	
78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매 니 저	高橋 慎二 Takahashi Shinji	
79	다이호공업(주)	매 니 저	宇津野 直樹 Utsuno Naoki	
80	다이호공업(주)	매 니 저	中村 吉彦 Nakamura Yoshihiko	
81	스미토모상사머시백(주)	팀 장	木村 浩明 Kimura Hiroaki	
82	(주)가토제작소	회 장	加藤 千雄 Kato Kazuo	
83	일본특수도업(주)	부 부 장	後藤 新太郎 Goto Shintaro	
84	일본특수도업(주)	과 장	齋藤 憲正 Saito Norimasa	
85	호쿠리쿠AJEC	상무이사	小林 真 Kobayashi Makoto	
86	호쿠리쿠AJEC	교류부장	杉山 正樹 Sugiyama Masaki	
87	TSUCHIYA(주)	부 장	岡田 義久 Okada Yoshihisa	
88	TSUCHIYA(주)	과장대리	林 哲也 Hayashi Tetsuya	
89	신토공업(주)	사 장	永井 淳 Nagai Atsushi	
90	아이치대학	이 사 장	佐藤 元彦 Sato Motohiko	
91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상무이사	木村 慎一郎 Kimura Shinichiro	주최·협력기관
92	GNI협의회	매 니 저	竹村 初美 Takemura Hatsumi	
93	GNI협의회	매 니 저	渡邊 希世乃 Watanabe Kiyono	
94	아이치현청	부 지 사	森岡 仙太 Morioka Senta	
95	아이치현청	산업노동 부 장	小山 和久 Oyama Kazuhisa	

96	아이치현청	추진감	森田 利洋 Morita Toshihiro	
97	아이치현청	산업입지 통상과장	臼井 利典 Usui Toshinori	
98	나고야상공회의소	회장	岡谷 篤一 Okaya Tokuichi	
99	나고야상공회의소	전무이사	細谷 孝利 Hosoya Takatoshi	
100	나고야상공회의소	상무이사	内川 尚一 Uchikawa Shoichi	
101	나고야상공회의소	부장	内田 吉彦 Uchida Yoshihiko	
102	나고야상공회의소	그룹장	加藤 康博 Kato Yasuhiro	
103	나고야상공회의소	조사역	梅村 泰司 Umemura Taiji	
104	나고야상공회의소	주임계장	長瀬 栄治 Nagase Eiji	
105	중부경제연합회	회장	三田 敏雄 Mita Toshio	
106	중부경제연합회	사무국장	小川 正樹 Ogawa Masaki	
107	중부경제연합회	상무이사	三浦 司之 Miura Moriyuki	
108	중부경제연합회	국제부장	山中 賢一 Yamanaka Kenichi	
109	아이치산업진흥기구	이사장	森 鋭一 Mori Toshikazu	
110	아이치산업진흥기구	부장	小野木 三郎 Onogi Saburo	
111	아이치산업진흥기구	Advisor	吉川 稔 Yoshikawa Minoru	
112	해외사업지원센터나고야	대표이사	高橋 和彦 Takahashi Kazuhiko	
113	글로벌클라우드파트너즈	대표	織田 徹 Oda Toru	

첨부 4

한·일(아이치)경제교류회의 사진



교류회(1)



교류회(2)



상담회(1)



상담회(2)



세미나(1)



세미나(2)



산업시찰(1)



산업시찰(2)

한국경제

A 32 2015년 7월 8일 수요일

사람들

사람을 얻은 독자여러분의 사랑방입니다. 동정 인사·연락처입니다. 전화 360-4247, 4249 팩스 360-4350 이메일

‘금호영재’ 오보이스트 합경
獨 명문 하노버 슈타츠오퍼
첫 한국인 오보에 수석 임명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금호영재 출신 오보이스트 합경(22·사진)이 독일 명문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인 하노버 슈타츠오퍼의 오보에 수석으로 임명됐다고 7일 발표했다.

합경은 지난 2일 치러진 1차 오디션과 3일 열린 본선 오디션을 거쳐 러시아 오보이스트와 함께 오보에 수석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이어 6일 단원 투표를 통해 오보에 수석으로 임명됐다. 이번 임용으로 그는 이 오케스트라 최초의 한국인 수석단원이자 최연소 단원 수석의 기록을 세웠다.

합경은 2005년 금호영재재능서포터즈로 데뷔한 금호영재아이스트 출신이다.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에서 오보이스트니콜라스다니엘을 사사했다. 스위스 국제 바순·오보에 콩쿠르, 독일 만하임 리하르트 라우시만 국제 오보에 콩쿠르, 예른스트 크레네그 콩쿠르, 로치 오보에 바순 국제콩쿠르,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국제 콩·타악 콩쿠르 등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최종 임용 단계에서 다른 러시아 연주자와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오케스트라 단원 투표로 선출돼 매우 기쁘다”며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합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이번 피셔가 이끄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서 잉글리시 호른 수석으로 선발돼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하노버 슈타츠오퍼에는 내년 초 합류한다. 김보영 기자 wjng@hankyung.com

SK네트웍스, 저개발국 아동 학용품 전달



SK네트웍스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학용품이 담긴 ‘드림패키지’ 1400개를 제작해 아시아 저개발국가 아동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드림패키지는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이 학용품 10여종과 SK네트웍스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주머니로 구성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관훈클럽(총무 이선근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 사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을 초청해 관훈토론회를 연다. 윤 장관 초청 토론회에선 한·일 관계 개선,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북핵 등 외교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 농촌 70년’ 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사진)은 오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충정로 농업중앙회에

벤처 1세대 지원 약속에 ... 내셔널지오그래픽 아시아재단 서울로

“과학 및 탐험 인재, 발굴·육성하겠다”

대표에 이재철 씨 선임

세계적 명성의 다큐멘터리 잡지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이 7일 서울에 아시아재단 본부를 설립하고 학술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NXC 대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 등 벤처 1세대 기업인 5명이 년 기부금 50억원(향후 5년간)으로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측은 당초 홀몸이나 싱가포르 등을 아시아재단 본부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이해진, 김범수 의장 등이 지난해 5월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벤처기부펀드 ‘C프로그래밍’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임지를 서울로 바꿨다. 이들 5명의 벤처기업인은 자신이 낸 돈을 사회 공헌에 사용하지는 뜻에서 의기투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회사 자금이 아닌 개인 돈을 펀드에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염준미 C프로그래밍 이사장도 “다섯 분 모두 아시아재단의 초기 설립자금 출연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초기 설립자금 출연 외에도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장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재단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의장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김정주 NXC 대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재웅 다음 창업자

이해진 의장 등 기업인 5명
5년간 50억원 기부하기로

인류학·지질학 등 중점 지원
18~25세 젊은 연구자도 선정

신임 대표에는 이재철 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위원이 선임됐다. 이 대표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과학역사 학위를 받은 뒤 MIT 미디어연구소 연구원 등을 지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아시아재단은 인류학 고고학 생물학 지질학 해양학 지리학 고생물학 등 기초과학 연구분야의 현장 탐사 및 탐험, 환경보전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출신 과학도라면 누구나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 탐험가 연구 지원제도를 통해 만 18~25세 젊은 연구자의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테리 가르시아 내셔널지오그래픽 최고과학탐험책임자(CSEO)는 “이번 아시아재단 설립이 아시아권 과학 및 탐험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재단을 이끄는 이 대표는 “다양한 기관 및 민간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재단으로 지난 125년간 1만1000여건이 넘는 과학 현장연구, 탐험 및 탐사, 환경 생태계 보존 등 학술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물을 매거진과 방송, 전시회,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계인과 공유함으로써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이호기 기자 hjlee@hankyung.com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석한 오무라 아이치현 지사

“한·일 교류, 자동차산업 협력부터”

“부강한 동아시아로 가는 지름길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에서 시작됩니다. 일본 제조업의 중심지 나고야에서 자동차산업부터 협력하는 건 어떨까요?”

지난 1일 일본 나고야에 있는 아이치현청에서 열린 한·일 경제교류회의 행사장에서 만난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나고야 총영사관, 한일경제협회, 한·일 경제교류회의 실행위원회 등 한국과 일본 측 관계자들이 대담자로 나섰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양국 교류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는 와중에 열린 이번 회의에 현지 언론의 관심이 높았다.

도요타자동차 본사가 있는 나고야는 일본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꼽힌다. 이번 회의도 지역 특성에 맞춰 자동차산업을 다뤘다. 현대자동차 도쿄법인과 일본 미쓰비시, 덴소 등 한국과 일본의 완성차 및 부품업체 관계



지난 1일 아이치현청에서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가 열렸다.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오른쪽 두 번째)가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세 번째)과 악수하고 있다.

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교류회의는 지난해 10월 방한한 오무라 지사가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사된 것이다. 오무라 지사는 회의의 의원 시절부터 한국과의 교류에 관심이 많았던 지한파 정치인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일한의원연맹사무국장을 맡았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는 도쿄에

차려진 민간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2011년 아이치현 지사로 취임했을 때 지역관광 홍보차 서울에 들렀다. 오무라 지사는 “당시 귀즈를 맞히면 나고야의 명물인 고양이 인형상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한 한국인 여성이 인형을 받은 뒤 도넛을 선물로 줬다. 한국의 정이 그림다”고 회상했다.

이후에도 매년 한 번꼴로 한국을 찾고 있다. 지난 4월엔 조선통신사 관련 학술심포지엄을 후원했고, 지난달 열린 전북도립국악원 공연에선 직접 축사를 맡았다. 한국과 아이치현의 음식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늘려 경쟁력 있는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나고야=정세희 기자 ssy@hankyung.com

愛知と韓国 連携深める

名古屋 経済交流会議、180人参加

日韓国交正常化五十周年を記念した「愛知(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が一日、名古屋市中区のホテルで開かれ、日韓の企業関係者ら百八十人が参加した。

日韓国交正常化五十周年を記念した「愛知(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が一日、名古屋市中区のホテルで開かれ、日韓の企業関係者ら百八十人が参加した。

交流会議は昨年十月の大村秀章知事の訪韓がきっかけ。地域から日韓交流を盛り上げようと、県や名古屋商工会議所で行う実行委員会などが主催した。

大村知事は「日韓間には厳しい時期もあったが、交流回復の兆しもある。愛知と韓国の連携を深めたい」とあいさつ。韓日経済協会の李鍾允副会長は「愛知は日本のものづくりの本拠地。愛知と韓国との交流から東アジア全体の経済共同体を」と、地域から生まれる日韓の経済協力の重要性を強調した。

会議では、企業や経済団体が日韓の連携協力事例を紹介。県内に四工場がある化学メーカー、東しの村上淳

任理事国際部門長は一九七二(昭和四十七)年から韓国の合成繊維会社と提携し、韓国市場に積極的に進出したことを説明した。

韓国に八カ所ある経済自由区域の一つ、大邱慶北自由区域庁の都建佑庁長は、六〇年代から両国の自動車メーカーや製鉄会社などが協力関係にあったことを紹介。「韓国企業が成長したのは日韓交流のおかげ」と述べた。

(大西里奈)

愛知・韓国経済交流会議始まる

名古屋・180人参加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

年を記念し、両国の経済交流の発展を目指す「愛知(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が一日、名古屋市内で始まった。

全体会議としてのセミナーには両国の経済団体や企業関係者ら計一八〇人が参加、互いの理解を深めた。

県や韓国の政府機関などで行う実行委員会が主催した。セミナーの冒頭で大村秀章知事が「情報の共有を通じて、新しいビジネスチャンスにつながるには「幸い」とあいさつ。韓日経済協会の李鍾允副会長は「加工貿易という両国の同じような産業構造は結果的に互いの利益にならない。分業の強化で相互発展できる」と指摘した。上野は、「名古屋・愛知から日本全体に通じる面での協力体制が構築できる」と期待を示した。

セミナーのテーマは「ものづくりの未来と日韓の発展」。前半では、韓国で事業展開する企業や学識者らが講演し、後半では、企業による連携協力の事例発表があった。

この日は自動車関連や日本酒の商談会もあった。最終日の2日は産業視察ツアーが行われる。【町田結子】

名古屋で経済交流会議

日韓国交正常化 50周年を記念



日韓関係者ら約180人が参加した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記念し、愛知(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が1日、名古屋市内のホテルで開催された。節目の年に日韓両国

のさらなる発展につなげようと、日韓関係者ら約180人がセミナーなどに参加した。

冒頭、同会議実行委員会会長を務める大村秀章・愛知県知事が「愛知から75社が韓国に、韓国から21社が愛知に進出している。人やモノの往来は活発。グローバル化が進む中、日韓の連携も増えるだろう。情報の共有を通してビジネスチャンスにつながれば」とあいさつした。

韓日経済協会の李鍾允副会長は「韓日が共に繁栄する関係をいかに構築するか。東アジア経済共同体の形成が求められる」と話した。その後、日韓企業による連携事例の発表が行われた。

日本酒を韓国にPR

ジェトロ名古屋が商談会

周年を記念し、愛知県と韓国との経済交流を促進するねらい。

2014年の日本産酒類の輸出先では、韓国が数量ベースで1位、金額ベース



活発な商談が行われた

だが、愛知県は「韓国は日本産酒類の最大の輸出先だが、愛知県の存在はまだ薄い。商談会を通じて輸出拡大を目指したい。また、愛知県内にはお酒に合う伝統工芸の器も多い。併せて日本の食文化の良さを発信したい」と話していた。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名古屋貿易情報センターは1日、名古屋市内のホテルで、日本酒や焼酎など日本産酒類の韓国への輸出拡大を目指す商談会を開催した。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記念し、愛知県と韓国との経済交流を促進するねらい。2014年の日本産酒類の輸出先では、韓国が数量ベースで1位、金額ベースで2位となっている。また、近年、韓国では和風居酒屋が人気で、日本産酒類の消費拡大が見込まれている。商談会には、日本から蔵元や日本酒を販売する10社、韓国からは日本酒の輸入企業3社が参加した。内藤醸造(稲沢市)の営業担当者は「韓国への輸出を増やしたい」と思い参加した。今日の商談会では手応えがあったと話し、今後の取引拡大に期待していた。

一方、韓国企業を担当者は、「韓国では日本のお酒の需要が、ますます高まると思う。今後、取引を増やしたい」と意欲的だった。ジェトロ名古屋の藤井真也所長は「韓国は日本産酒類の最大の輸出先だが、愛知県の存在はまだ薄い。商談会を通じて輸出拡大を目指したい。また、愛知県内にはお酒に合う伝統工芸の器も多い。併せて日本の食文化の良さを発信したい」と話していた。

한국경제

경색된 한일관계, 자동차산업으로 풀자 … 한·일 아이치 경제교류회의 개최

입력 2015-07-07 06:59:58 | 수정 2015-07-07 09:21:59



지난 2일 찾은 일본 나고야 인근 다카하마시의 도요타 L&F 공장. 지게차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바닥 색깔을 역할별로 나눈 게 특징이다. 초록색은 작업 공간, 파란색은 보행도로, 빨간색은 부품 운송로로 지정했다.

불필요하게 동선이 겹치는 경우를 방지해 작업 효율성을 높였다. 초록색 작업 공간을 따라가면 지게차 완성품과 품질 검사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날 현장시찰에 참석한 밀봉 기계부품 생산업체 진양오일썰의 이상우 전무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순환되는 구조의 제조 공정 흐름을 눈여겨봤다. 제조 공정 리모델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의에선 비즈니스 상담회, 경제협력 세미나, 현지 제조업 현장시찰까지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이번 경제교류회의는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이 주최했다. 한·일 양국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업체와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완성차 업체와 중소 자동차 부품기업 '만남의 장'



일본 자동차 산업의 시발점인 나고야의 특성을 살려 자동차 업체들이 만나는 자리가 하이라이트였다. 경제교류회의 둘째 날 열린 기업 상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업체 독일산업의 박종구 상무는 “상담회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알게 됐다. 일본 기업들과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귀띔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의 정선화 주임도 “중소기업인 부품업체들이 평소 만나기 어려운 대기업 완성차 업체와 함께 정보를 교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양국 업체들이 모이는 자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개최해 왔지만 완성차 업체는 일본 쪽에서만 참여해 ‘반쪽짜리’ 행사였다. 이번 경제교류회의 일환으로 열린 상담회엔 국내 완성차 업체도 함께 자리해 일본측 부품업체들이 크게 반겼다.

유예진 코트라 나고야무역관 차장은 “그간 코트라도 유사한 상담회를 열었는데 완성차 업체로는 일본 기업만 참여했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 도요법인이 합류해 보다 의미 있는 교류가 됐다”고 설명했다.

◆ 일본 '모노즈쿠리' 국내 기업 이식으로 분위기 전환



이날 상담회 이후 열린 경제협력 세미나에선 ‘모노즈쿠리’를 적용한 기업들의 사례가 발표됐다. ‘물건 만들기’란 의미의 모노즈쿠리는 일본의 장인정신을 상징한다.

앞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해 국내 기업들에 모노즈쿠리의 장점을 이식하는 데 힘써 왔다. 한국측 협력사례 발표자로 나선 박진홍 **네오티스** 상무는 “모노즈쿠리 교육과정이 새로운 사고와 분위기 전환을 가져왔다. ‘3정(정위치·정품·정량) 5s(정리·정돈·정소·정결·습관화)’ 도입으로 품질 혁신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교류회의 마지막 날엔 현장시찰이 이어졌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생산하는 부품업체 애드빅스는 현장 한 칸에 전날 발생한 불량품을 전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는 모노즈쿠리가 작업 현장에 녹아든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번 행사의 일본 주최측 오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을 만나 경제교류회의를 제안받았다”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나고야= 장세희 한경닷컴 기자 ssay@hankyung.com

한국경제

지한파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 “한·일 교류, 자동차산업 협력부터”

입력 2015-07-07 18:08:52 | 수정 2015-07-08 03:59:10



“부강한 동아시아로 가는 지름길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에서 시작됩니다. 제조업의 중심지 나고야에서 자동차 산업부터 협력하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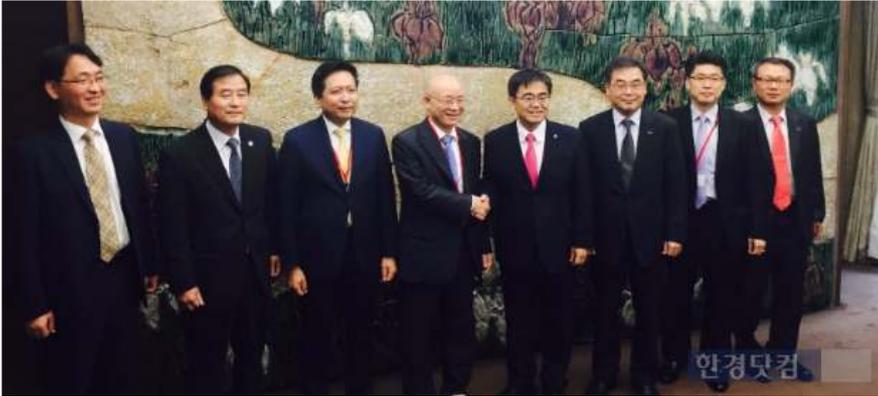
지난 1일 일본 나고야시 아이치현청에서 열린 한·일(아이치) 경제교류회의 대담회에서 만난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사진)는 민간 차원 경제 교류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대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나고야 총영사관, 한일경제협회, 경제교류회의 실행위원회 등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양국 교류행사가 연이어 취소되는 와중에 계획대로 열린 이번 회의에 대한 현지 언론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도요타자동차 본사가 있는 나고야는 일본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꼽힌다. 이번 회의도 지역적 특성에 맞춰 자동차 산업을 다뤘다. 양국 완성차와 부품 업체 등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업계의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업체 간 협력관계도 맺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무라 지사가 적극 추진해 일본 미쓰비시, 덴소 등 주요 자동차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국내업체 중에선 현대자동차 도쿄법인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경제교류회의는 지난해 10월 방한한 오무라 지사가 한일경제협회 이종운 부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사됐다.

오무라 지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지역 차원 경제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양국 간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남아있지만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다. 이번 교류가 새로운 반세기 동안 함께 부강해지는 추진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회에 참석한 이종운 부회장은 “한국과 나고야가 긴밀해지면 그 파급 효과로 한·일 전체가 긴밀해질 것”이라며 “이번 회의로 양국이 서로 강점을 찾아 이를 토대로 함께 발전해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정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일본지역 본부장은 “2006~2009년 나고야 코트라 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양국 관계가 좋아 한·일 협력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지만 최근 일본 내 험한 감정이 커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경제교류회의는 오무라 지사의 공이 매우 크다. 코트라가 준비한 기업상담회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건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울산의 현대차 공장과 인접한 대구는 자동차 부품 제조가 주요 산업이다. 대구 자동차부품 업체가 나고야에 많이 진출했고 수·출입도 많은데 향후 한·일간 상호 직접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무라 지사는 “이번 경제교류회의에서 기업간 결실을 맺길 바란다. 양국의 경제 교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무라 지사는 중의원 의원 시절부터 한국과의 교류에 관심이 많았던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일한의원연맹 사무국장을 맡았고, 작년 세월호 참사 때는 도쿄에 차려진 민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계기 중 하나로 “고 박태준 포스코 회장이 한국에 첫 제철소를 짓기 위해 일본에 강력하게 투자를 요청하며 분골쇄신 일했던 것에 감동했다”고 소개했다.

2011년 지사 취임 첫해에도 아이치현 관광 홍보차 서울에 들렀다. 오무라 지사는 “당시 퀴즈를 맞히면 나고야의 명물인 고양이 인형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한 한국인 여성이 인형을 받은 후 도넛을 선물로 줬다. 한국의 정(情)이 그림다”고 회상했다.

오무라 지사는 한해 한번 꼴로 한국을 찾고 있다. 올 4월 조선통신사 관련 학술심포지움을 후원했는가 하면 지난달 열린 전북도립국악원 공연에선 직접 축사까지 맡았다. 한국과 아이치현의 음식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이런 다양한 교류를 늘려나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자”고 덧붙였다.

나고야= 장세희 한경닷컴 기자 ssay@hankyung.com

연합뉴스

한일 자동차 상생협력 강화...비즈니스 상담회

송고시간 | 2015/07/01 11:00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코트라(KOTRA)가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자동차 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일 완성차·자동차부품 비즈니스 쌍방향 상담회'를 1일 일본 나고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했다.

현대차[005380], 대우인터내셔널[047050],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22개사와 스즈키, 미쓰비시, 덴소, 도요타방직을 포함한 일본 완성차업체와 협력업체 19개사가 참가해 총 100여건의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납품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수출상담회와는 달리 엔저를 활용해 고품질의 일본 제품을 국내 기업이 구매하기 위한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일본 현지로의 부품 조달 외에 중남미, 동남아 등 제3국 생산기지로의 조달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다. 상담회에 참가한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인지컨트롤스[023800] 관계자는 "엔저로 불리한 상황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3국 생산기지로의 진출도 일본 본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총영사관,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 경제교류회의'와 연계해 열렸다.

abullapia@yna.co.kr

코트라, ‘한일 양국 완성차·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입력 2015-07-01 09:44 수정 2015-07-01 09:52

코트라는 1일 일본 나고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양국 자동차 산업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완성차·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쌍방향 상담이란 국내 기업의 해외 납품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수출상담회와는 달리, 엔저를 활용해 고품질의 일본 제품을 국내 기업이 구매하기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총영사관, 한일경제협회 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일본(아이치) 경제교류회의’와 연계해 추진됐다. 상담회에는 현대차,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내 차부품 제조사 22개사와 스즈키, 미츠비시, 덴소, 도요타방직 등 일본 주요 완성차 제조사 및 1차 벤더 19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총 100여 건의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 현지로의 직접조달 외에 중남미나 동남아 등 제3국 생산기지로의 현지조달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도 진행됐다. 국내 기업들은 현지 납품이 실현되면 현지화 결재를 통해 비교적 엔저에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인 수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거점은 일본 본토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대(對) 일본 직접 수출에 유리한 납품실적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 기업들은 해외생산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실제로 현지 생산거점에서의 직접 납품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실제로 스즈키와 덴소는 2017년까지 각각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최근 도요타도 중국과 멕시코에 총 3개의 공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현태 코트라 나고야무역관장은 “이번 행사가 최근 엔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의 수출에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향후 한일양국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글로벌이코노믹

코트라, 한·일 자동차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양국 車 산업 협력 확대'

기사입력 : 2015.07.01 12:58 (최종수정 2015.07.01. 12:58)



1일 일본 나고야에서 코트라 주관으로 열린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한일 양국 완성차 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 전경./사진=코트라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양혁 기자] 코트라(KOTRA)가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자동차 산업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나섰다.

코트라는 1일 일본 나고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한일 양국의 완성차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쌍방향 상담회에서는 기존 국내 기업의 해외 납품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수출상담회와는 달리, 일본 제품을 국내 기업이 구매하기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총영사관, 한일경제협회 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일본(아이치) 경제교류회의'와 연계해 추진됐다.

상담회에서는 현대차,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내 차부품 제조사 22개사와 스즈키, 미츠비시, 덴소, 도요타 방직 등 일본 주요 완성차 제조사 및 1차 벤더 19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총 100여건의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코트라는 국내 기업들의 현지 납품이 실현되면 현지화 결재를 통해 비교적 엔저에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인 수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거점은 일본 현지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직접수출에 유리한 납품실적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태 코트라 나고야무역관장은 "이번 행사가 최근 엔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의 수출에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한일양국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 myvvvvv@

뉴데일리경제

한일수교 50주년, 車로 상생협력 물꼬 튼다

코트라, '한·일 양국 완성차·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현대차·대우인터내셔널 등 참여

뉴데일리경제 박기태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5.07.01 16:54:42

프로필 사진 박기태 pkt@newdailybiz.co.kr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한일 양국 완성차 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 전경. ©코트라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코트라(KOTRA, 사장·김재홍)가 한일 양국 자동차 산업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나섰다.

코트라는 1일 일본 나고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양국 자동차 산업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완성차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쌍방향 상담이란 국내 기업의 해외 납품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수출상담회와는 달리, 엔저를 활용해 고품질의 일본 제품을 국내 기업이 구매하기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총영사관, 한일경제협회 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일본(아이치) 경제교류회의'와 연계해 추진됐다.

상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 국내 차부품 제조사 22개사와 스즈키, 미츠비시, 덴소, 도요타 방직 등 일본 주요 완성차 제조사와 1차 벤더 19개사가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총 100여건의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 현지로의 직접조달 외에 중남미나 동남아 등 제3국 생산기지로의 현지조달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도 진행됐다. 국내 기업들은 현지 납품이 실현되면 현지화 결재를 통해 비교적 엔저에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인 수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거점은 일본 본토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대(對) 일본 직접 수출에 유리한 납품실적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담에 참가한 인지컨트롤스의 관계자는 "엔저 상황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3국 생산기지의 진출을 공략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 본사이기 때문에 이번 상담회에서 본사의 결정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기업들은 해외생산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현지 생산거점으로서의 직접 납품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스즈키와 덴소는 2017년까지 각각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최근 도요타도 중국과 멕시코에 총 3개의 공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현태 코트라 나고야무역관장은 "이번 행사가 최근 엔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의 수출에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향후 한일양국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한일수교 50주년, 자동차로 상생협력 물꼬튼다

KOTRA, ‘한일 양국 완성차·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고성민 기자 | msijwd@hanmail.net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KOTRA(사장 김재홍)가 한일 양국 자동차 산업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나섰다.

KOTRA는 1일 일본 나고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양국 자동차 산업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완성차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쌍방향 상담이란 국내 기업의 해외 납품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수출상담회와는 달리, 엔저를 활용해 고품질의 일본 제품을 국내 기업이 구매하기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총영사관, 한일경제협회 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일본(아이치) 경제교류회의’와 연계해 추진됐다.

상담회에는 현대차,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내 차부품 제조사 22개사와 스즈키, 미츠비시, 덴소, 도요타방직 등 일본 주요 완성차 제조사 및 1차 벤더 19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총 100여 건의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 현지로의 직접조달 외에 중남미나 동남아 등 제3국 생산기지로의 현지조달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도 진행됐다. 국내 기업들은 현지 납품이 실현되면 현지화 결재를 통해 비교적 엔저에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인 수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거점은 일본 본토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대(對) 일본 직접 수출에 유리한 납품실적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담에 참가한 인지컨트롤스의 관계자는 “엔저 상황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3국 생산기지로의 진출을 공략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 본사이기 때문에, 이번 상담회에서 본사의 결정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 기업들은 해외생산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실제로 현지 생산거점으로서의 직접 납품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스즈키와 덴소는 2017년까지 각각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최근 도요타도 중국과 멕시코에 총 3개의 공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현태 KOTRA 나고야무역관장은 “이번 행사가 최근 엔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의 수출에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향후 한일양국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트라, 한일 자동차 상생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현대차·대우인터 참가

정용기 기자(yonggi@)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코트라(KOTRA)는 '한일 완성차·자동차부품 비즈니스 쌍방향 상담회'를 1일 일본 나고야 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현대자동차, 대우인터내셔널,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22개사와 스즈키, 미쓰비시, 덴소, 도요타방직을 포함한 일본 완성차업체와 협력업체 19개사가 참가해 총 100여건의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납품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수출상담회와는 달리 엔저를 활용해 고품질의 일본 제품을 국내 기업이 구매하기 위한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일본 현지로의 부품 조달 외에 중남미, 동남아 등 제3국 생산기지로의 조달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다.

상담회에 참가한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인지컨트롤스 관계자는 "엔저로 불리한 상황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3국 생산기지로의 진출도 일본 본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총영사관,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 경제교류회의'와 연계해 열렸다.

KOTRA "韓日 수교 50주년, 자동차로 상생협력 물꼬튼다"

최종수정 2015.07.01 11:27기사입력 2015.07.01 11:27

'한일 양국 완성차·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제3국 해외 생산기지로의 납품', 엔저 극복 대안으로 떠올라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코트라(KOTRA)가 한일 양국 자동차 산업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나섰다. KOTRA는 1일 일본 나고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양국 자동차 산업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완성차·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쌍방향 상담이란 국내 기업의 해외 납품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수출상담회와는 달리 엔저를 활용해 고품질의 일본 제품을 국내 기업이 구매하기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총영사관, 한일경제협회 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일본(아이치) 경제교류회의'와 연계해 추진됐다.

상담회에는 현대차,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내 차부품 제조사 22개사와 스즈키, 미츠비시, 덴소, 도요타방직 등 일본 주요 완성차 제조사 및 1차 벤더 19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총 100여 건의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 현지로의 직접조달 외에 중남미나 동남아 등 제3국 생산기지로의 현지조달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도 진행됐다. 국내 기업들은 현지 납품이 실현되면 현지화 결재를 통해 비교적 엔저에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인 수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거점은 일본 본토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대(對) 일본 직접 수출에 유리한 납품실적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담에 참가한 인지컨트롤스의 관계자는 "엔저 상황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3국 생산기지로의 진출을 공략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 본사이기 때문에 이번 상담회에서 본사의 결정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기업들은 해외생산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실제로 현지 생산거점으로서의 직접 납품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스즈키와 덴소는 2017년까지 각각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최근 도요타도 중국과 멕시코에 총 3개의 공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현태 KOTRA 나고야무역관장은 "이번 행사가 최근 엔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의 수출에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향후 한일양국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아주경제

한일수교 50년, 코트라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이재영 기자(leealive@ajunews.com)



한일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리고 있다.[코트라 제공]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코트라가 한일 양국 자동차 산업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나섰다.

코트라는 1일 일본 나고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양국 자동차 산업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완성차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쌍방향 상담이란 국내 기업의 해외 납품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수출상담회와는 달리, 엔저를 활용해 고품질의 일본 제품을 국내 기업이 구매하기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총영사관, 한일경제협회 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일본(아이치) 경제교류회의'와 연계해 추진됐다.

상담회에는 현대차,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내 차부품 제조사 22개사와 스즈키, 미츠비시, 덴소, 도요타방직 등 일본 주요 완성차 제조사 및 1차 벤더 19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총 100여 건의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 현지로의 직접조달 외에 중남미나 동남아 등 제3국 생산기지로의 현지조달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도 진행됐다. 국내 기업들은 현지 납품이 실현되면 현지화 결재를 통해 비교적 엔저에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인 수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거점은 일본 본토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대(對) 일본 직접 수출에 유리한 납품실적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담에 참가한 인지컨트롤스의 관계자는 “엔저 상황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3국 생산기지로의 진출을 공략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 본사이기 때문에, 이번 상담회에서 본사의 결정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 기업들은 해외생산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실제로 현지 생산거점으로서의 직접 납품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스즈키와 덴소는 2017년까지 각각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최근 도요타도 중국과 멕시코에 총 3개의 공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현태 코트라 나고야무역관장은 “이번 행사가 최근 엔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의 수출에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향후 한일양국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일수교 50주년, 자동차로 상생협력 물꼬튼다

입력시간 | 2015.07.01 14:51 | 정태선 기자 windy@



일본 나고야에서 KOTRA 주관으로 열린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한일 양국 완성차 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국내기업과 일본기업 관계자가 상담을 하고있다. KOTRA 제공.

KOTRA, '한일 양국 완성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
'제3국 해외 생산기지로의 납품', 엔저 극복 대안으로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KOTRA가 한일 양국 자동차 산업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나섰다.

KOTRA는 1일 일본 나고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양국 자동차 산업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완성차·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쌍방향 상담이란 국내 기업의 해외 납품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수출상담회와는 달리, 엔저를 활용해 고품질의 일본 제품을 국내 기업이 구매하기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총영사관, 한일경제협회 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일본(아이치) 경제교류회의’와 연계해 추진됐다. 상담회에는 현대차,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내 차부품 제조사 22개사와 스즈키, 미츠비시, 덴소, 도요타방직 등 일본 주요 완성차 제조사 및 1차 벤더 19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총 100여 건의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 현지로의 직접조달 외에 중남미나 동남아 등 제3국 생산기지로의 현지조달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도 진행됐다.

국내 기업들은 현지 납품이 실현되면 현지화 결재를 통해 비교적 엔저에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인 수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거점은 일본 본토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해 일본 직접 수출에 유리한 납품실적을 축적할 수 있다.

상담에 참가한 인지컨트롤스의 관계자는 “엔저 상황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3국 생산기지로의 진출을 공략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 본사”라며 “이번 상담회에서 본사의 결정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기업은 해외생산을 확대하는 추세로 현지 생산거점으로 직접 납품하는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스즈키와 텐소는 2017년까지 각각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최근 도요타도 중국과 멕시코에 총 3개의 공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김현태 KOTRA 나고야무역관장은 “이번 행사가 최근 엔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의 수출에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한일양국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나고야에서 KOTRA 주관으로 열린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한일 양국 완성차 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국내기업과 일본기업 관계자가 상담을 하고있다. KOTRA 제공.



일본 나고야에서 KOTRA 주관으로 열린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한일 양국 완성차 자동차부품 쌍방향 비즈니스 상담회’ 전경. KOTRA 제공.

愛知・韓国経済交流会議：名古屋で始まる 180人参加 / 愛知

毎日新聞 2015年07月02日 地方版

日韓外交正常化50周年を記念し、両国の経済交流の発展を目指す「愛知（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が1日、名古屋市内で始まった。全体会議としてのセミナーには両国の経済団体や企業関係者ら計180人が参加、互いの理解を深めた。

県や韓国の政府機関などでつくる実行委員会が主催した。セミナーの冒頭で大村秀章知事が「情報の共有を通じて、新しいビジネスチャンスにつながれば幸い」とあいさつ。韓日経済協会の李鐘允副会長は「加工貿易という両国の同じような産業構造は結果的に互いの利益にならない。分業の強化で相互発展できる」と指摘した上で、「名古屋・愛知から日本全体に通じる両国の協力体制が構築できる」と期待を示した。

セミナーのテーマは「ものづくりの未来と日韓の発展」。前半では、韓国で事業展開する企業や学識者らが講演し、後半では、企業による連携協力の事例発表があった。

この日は自動車関連や日本酒の商談会もあった。最終日の2日は産業視察ツアーが行われる。【町田結子】

韓国・経済関係者ら大村知事を訪問

15.07.01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記念し、愛知県で開催中の「経済交流会議」に出席する韓国の代表者らが1日、大村知事を訪問しました。

大村知事は、「今回の会議を通し、両国の経済面での関係がより一層強化されることを期待したい」と話していました。



韓国愛知経済交流会議に現代自動車など22社が参加 日韓正常化50年、政治は政治、ビジネスはビジネス（前編）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記念して、愛知県名古屋市で「韓国愛知経済交流会議」が開催された。同会議は商談会、セミナー、レセプション、工場視察などで構成される2泊3日間のイベントだ。

主催は、韓国側が大韓民国産業通商資源部（部は省）、駐名古屋大韓民国総領事館、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KOTRA）、韓日経済協会、韓日産業技術協力財団。日本側は愛知・韓国経済交流会議実行委員会（愛知県、名古屋商工会議所、中部経済連合会、あいち産業振興機構）が仕切った。

韓国から現代自動車ジャパン、大宇インターナショナルのほか、自動車部品メーカーなど合わせて22社82人が参加。日本からはデンソーやトヨタ紡織など愛知の企業19社、118人が参加した。

韓国の参加者からは「日本の企業とは長い付き合いをしたい」という趣旨の感想が相次いだ。

偶然の出会いが日韓交流のタネとなった

KOTRAと韓日経済協会、韓日産業技術協力財団の関係者は、「韓国愛知経済交流会議を開催できたのは、愛知県の

大村秀章知事のおかげだ」と口を揃えた。同会議は偶然の出会いから始まった。大村知事が2014年10月、生物多様性世界地方政府首脳会議に参加するため韓国を訪問した際に、李鐘允（イ・ジョンユン）韓日経済協会副会長と出会った。李副会長が大村知事に、愛知県企業と韓国企業の交流を提案したのが、経済交流会議のきっかけとなった。

李副会長は、「愛知は日本の製造業が集まる中心なので、愛知の企業と取り引きすることで実質的な韓日経済交流が生まれると思った。地域間の交流が盛んになれば、韓国と日本全体が緊密な関係になれる」と考え、大村知事に経済交流会議の必要性をアピールしたという。李副会長の提案に大村知事が同意し、着々と準備が進んだ。

名古屋にいと「嫌韓」は全く感じない

初日の6月30日に、駐名古屋大韓民国総領事館が名古屋市内のキャッスルプラザでレセプションを主催した。レセプションに参加した同総領事館の金栄煥（キム・ヨンファン）専門官は次のように名古屋の雰囲気伝えた。

「領事館はKOTRAと協力して、愛知県の企業と韓国企業をつなげる経済文化交流イベントを毎年行っている。だが、200人が参加する大規模な経済交流は今回が初めて。東京や大阪では『嫌韓』があるようだが、名古屋にいと全く感じない。韓国に進出した愛知企業が多いので経済交流しましょうという雰囲気だ」。

レセプションの席上でKOTRA名古屋貿易館の金鉉泰（キム・ヒョンテ）館長は、韓国からの出席者に向けて次のように語った。「名古屋は自動車産業都市として韓国でも有名だ。KOTRA名古屋貿易館は2009年に初めてトヨタ自動車と商談会を開催。2014年には史上初めて、自動車部品で対日貿易黒字を記録した」。

「名古屋貿易館は、韓国の部品メーカーを名古屋の企業に紹介するKorea Auto Parts Parkを2013年から運営している。最近、メキシコや南米に工場を持つ韓国の自動車部品メーカーを紹介してほしいというリクエストが名古屋の日本企業から増えている。韓国企業と日本企業が協力して第3国で共生してほしい。どちらかの国が一方的に輸出をたくさんするのはなく、Win-Winの関係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

レセプションに参加した、名古屋に住んで20年という在日韓国人の方は、韓国からの参加者に名古屋の特徴を説明した。「名古屋商人は細かいことで有名。しかし一度信頼した相手はとことん助ける。名古屋で成功すれば日本のどこに行っても成り得る。名古屋企業や愛知企業の良さは長く取引をすればするほどよく分かる」。



7月1日、名古屋クラウンプラザホテルで行われた韓国愛知経済交流会議の交流会で韓日経済教会のイ・ジョンユン副会長が祝辞を述べた。

韓国企業はスピード重視、日本企業は慎重

7月1日には名古屋クラウンプラザホテルで商談会とセミナーが行われた。商談会のタイトルは「韓日両国の完成車自動車部品双方向ビジネス商談会」。韓国の部品メーカーが日本企業に部品を売り込むだけでなく、日本の部品メーカーが韓国の現代自動車や大宇インターナショナルに部品を売り込む双方向の商談会となった。

KOTRAによると、商談会では、中南米や東南アジアなどの第三国で、韓国部品メーカーの現地工場から日本企業が部品を調達する商談も行われたという。韓国の参加企業は、「日本企業から決定権を持つ役員クラスが参加した。これで実のある商談ができた。大変満足した」と評価した。

現代起亜自動車の購買本部チーム長として東京に駐在している全政坤（ジョン・ジョンゴン）さんは、今回バイヤーとして愛知県の部品メーカーと商談した。全さんは以下のように商談会の感想を述べた。

「現代自動車が日本での商談会に参加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愛知県の排気系部品会社と商談した。日本は震災が多いので、突然の地震で納期が遅れたりしないか、リスクについて検討した。現代自動車は日本でよく知られているので、興味を持ってくれる日本企業が多いと感じた」

「10年前、交換学生として日本で1年間暮らしたことがある。東京都立大学（現首都大学東京）に通い、宇宙工学を専攻した。当時の日本人は多様性を認め、色々な意見を受け入れるところがあり素晴らしいと思った。駐在員として赴任して1年になる。最近の日本は何か変わったように感じる」

「ビジネスの場で感じる日韓の差は、日本のビジネスマンが役職を大事にすることだ。上下関係がはっきりしている。韓国は役職より年齢重視なので、年上の人の意見は役職が下でも尊重する」

「韓国は時間との勝負を重視しており、とにかく早く納品する。まず一部だけ納品して、その後に修正することもある。一方、日本は慎重に時間をかける」

「現代自動車は主に韓国や日本、ドイツの部品会社と取引している。韓国の技術は日本の80%ほどにまで追いついたが、日本企業にしか製造できない部品もある。ハイエンド市場はドイツから部品を調達することが増えた」

「日本企業と知り合うきっかけを作りたい」

商談会の場で、愛知企業の関心を最も捉えたように見えたのは自動車用スイッチ・電装部品を生産するDUCKIL INDUSTRYだった。同社のパク・ジョンク常務は、商談会に参加した感想を以下のように述べた。

「韓日産業技術協力財団が間に入ってDUCKIL INDUSTRY を愛知の企業に紹介してくれた。基本的な情報を知ったうえで商談会なので話は速かった。三菱自動車、デンソー、トヨタ関連会社など合わせて5社の役員と商談した。弊社の技術をすぐ理解してくれて、期待以上の反応を見せた。すぐに見積もりを送ることにした」

「商談したある1社は、彼らが持つ新技術を我々に紹介して、一緒にシナジー効果を出してみないかと提案してくれた。我が社は自動車関連部品を500種以上生産していて、米クライスラーや日産自動車に納品している。色々なことをやっているから日本側が関心を持つようだ」

「我が社は中堅企業だが事業は好調で、売上高の50％は輸出で稼いでいる。製造を拡大するため、面積が現行の3倍もある工場を今年新しく建てた。フィリピンのセブ島にも工場がある。中国にはジョイントベンチャーがあり、サイドミラー、自動車モーターなどを製造している」

「米国市場には商談会ではなく独力でルートを開拓した。モーター展示会、金型展示会に10年以上参加し続け、2010年からクライスラーに製品を納め始めた」

「中堅企業が日本市場に進出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日本と韓国は近い国だが、お互いを知る機会はなかなかない。韓国愛知経済交流会議に参加したのは、日本企業と知り合うきっかけを作りたいからだ。三菱自動車もデンソーも、我が社が直接コンタクトしても絶対に会ってくれなかっただろう。こういう交流の場だからこそオープンマインドになって色々と話することができる」

「商談した日本企業からは、韓国企業のことをもっと知りたいという意志が伝わってきた。韓国の自動車産業も自動車部品産業も発展し、欧米で評価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れからは距離も近く文化も似ている日本とのビジネスの割合を増やしたい。日本企業とは時間をかけてゆっくり信頼を築きたい。日本の新技術を導入して、韓国や米国にいる我が社の顧客に売ることも考えている。部品業界は多国籍で為替レートは動くものなので、円安はあまり影響がない」

東レは国交正常化前から韓国で事業を展開

商談会に続けて、セミナーが開かれた。その席での祝辞で愛知県の大村知事は、愛知の企業75社が韓国に進出していると紹介するとともに、「今回の経済交流会議をきっかけに地域交流と企業連携が深まることを期待する」と述べた。大村知事は韓国メディアの取材に対し、「日韓両国は政治的には課題が残されているが、民間交流を活性化して葛藤を解いていきたい」と語った。



7月1日、名古屋クラウンプラザホテルで行われた韓国愛知経済交流会議の交流会で愛知県大村秀章知事が祝辞を述べた。



7月1日午後からは、名古屋クラウンプラザホテルで韓国愛知経済交流会議セミナーが行われた。

東レの村上洋取締役国際部門長は、同社の韓国事業を次のように紹介した。「韓国は最も重要な海外拠点だ。国交が正常化する前の1963年からナイロン製造技術を輸出し、ビジネスをしてきた。1969年にはKOLON（旧韓国ナイロン）との合弁会社を設立し、繊維事業を拡大してきた。サムスングループとも1972年に合弁で第一合織を設立した。韓国の従業員は3400人。累計投資額は3兆ウォン（約3300億円）、売上高は年間2兆6000億ウォン（約2860億円）」。

大同メタル工業の小暮圭一上席執行役員は、「韓国との合弁会社は非常にうまくいっている。愛知の企業は韓国とビジネスをしているところが多い。大村知事も韓国好きで有名だ。愛知は韓国に友好的な地域」だと話した。

「日本とは100年後の未来を考えた交流を続けたい」 日韓正常化50年、政治は政治、ビジネスはビジネス（後編）

セミナーの後には交流会が続いた。韓国からの参加者に対して、経済以外の面でも愛知の魅力が豊富であることをアピールした。愛知県内の特産品と観光名所を紹介するパネルを展示。愛知県産日本酒の試飲会や、和太鼓演奏なども催した。愛知県商工会議所が「名古屋味噌の韓国向け輸出が2015年は過去最高を記録した」というエピソードを紹介した。



7月1日名古屋クラウンプラザホテルで行われた韓国愛知経済交流会議の交流会で参加者らが和太鼓演奏を鑑賞している

交流会で駐名古屋大韓民国総領事館の朴煥善（パク・ヒョンソン）総領事が祝辞を述べた。「ものづくりの本場である愛知で韓日経済交流会を開催できてとてもうれしく思う。韓国と日本は国交正常化した1965年以降、経済を中心に協力してきた。韓日関係では企業人の役割が重要である。日本とは100年後の未来を考えた交流を続けたい。愛知が、韓国と日本の共同繁栄の中心地になると信じている」。

「日本の工場はどこを見ても整理整頓されている」

7月2日、韓国からの参加者は二手に分かれてものづくり産業を視察した。第1チームは、豊田自動織機のTOYOTA L&Fカンパニー高浜工場とアドヴィックスの刈谷工場を見学した。豊田自動織機の工場は主にフォークリフトを生産している。豊田自動織機は、韓国にもTOYOTAフォークリフトの販売店があるのでぜひ買ってほしいとアピールしていた。一方、アドヴィックス刈谷工場は主に自動車用ブレーキシステムを製造開発している。



7月2日は最後の日程として産業視察が行われた。

工場見学後、韓国の参加者は次のように感想を述べた。

「韓国の自動車組み立て工場は広く、その設備は米国式の最新のものですっきりしている。しかし設備のメンテナンスや社員教育、安全教育は日本に学ばなくてはならないと思った。組み立てにかかる時間を管理していることや、どこを見ても整理整頓が徹底されているところがすごい。韓国も安全や教育に力を入れているが日本はさらに上だった」

「日本の工場は非常に狭いが、少人数で効率よく稼働させているところがすごい。日本の製造業の工場を何度も見学したが、愛知の工場はどこよりも効率よく動いている。今日は来ていない他の社員にも見学させたい」

韓国の参加者らは「組み立てにロボットは使わないのか」「年間ロードマップ管理はどのようにしているのか」といったことを積極的に質問していた。

日韓共同で中国ビジネスを拡大しよう

韓国愛知経済交流会議の参加者を見ると、日本側はほとんどが男性なのに対し、韓国からの参加者は3割ほどが女性だった。Donsung Holdings社で海外事業を担当するソン・ジョンさんは初めて名古屋を訪れたという。ソンさんは次のように感想を述べた。

「韓国と日本の経済交流会に参加できてうれしい。このような交流会がないと日本の企業と知り合うことができない。日本は近い国なのに営業しようにも窓口の情報が何もない。知り合わないとビジネスも生まれない。商談会を通じて日本企業との接点を作ることができた。日本は、日本の中で製造と消費が完結するので閉鎖的なかもしれない。商談会では『うちこういう会社です』と愛知の企業に紹介するにとどまったが、つながりができただけで十分成果があった」

「我が社は自動車部品に使う素材を開発する会社で、大阪や和歌山の企業と取り引きをしている。日本に輸出するだけでなく、輸入もたくさんしている。この商談会を機に、愛知の企業とも新たに取り引きできるようになるとうれしい。日本企業は、取り引きを始めるまでは大変だけど、長く付き合える良いパートナー。日本の取引先とは毎年、社長から社員まで全員参加の交流会を開いている」

「我が社は中国にも工場がある。日本のパートナーと一緒に中国ビジネスを拡大す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これからは中国で成功するのが本当の成功だから。日本企業が開発した技術に韓国が付加価値を付けて中国で売る戦略を考えている。韓国と日本の関係が悪くなったとメディアは言うが、B2Bの製造業には全く影響がない。影響があるのは完成車やB2C市場ではないだろうか。B2Bの製造業は技術があっってお金になるビジネスなら国籍は気にしない」。

日本流を学びながら働いている

粉末冶金で自動車部品を製造するSinteron社の海外営業部で働く禹水晶（ウ・スジョン）さんも名古屋は初めてだという。禹さんは大学で日本語を専攻していた。今は日本営業を担当している。



日本のビジネス文化を学びながら仕事していると話したSinteron社のウ・スジョンさん（左）

禹さんは、経済交流会議について以下の感想を述べた。

「同じように自動車に関わる日本の企業と交流できてとてもよかった。商談会での話もうまくまとまり、さっそく見積書を送ることにした」

「日本のクルマ・メーカーと取り引きする時は、日本側の要請で必ず日本の商社が間に入る。日本の商社に対応できるよう、韓国の部品メーカーはどこも日本語が話せる担当社員を採用している。日本の商社は韓国の自動車会社以上に手続きと書類を重視する。話し方も韓国と違う。日本の商社マンは遠まわしに話す。まだ新入社員なので、そういう日本文化を学びながら仕事をしている」

「円安の大きな影響はない。自動車部品の場合、一度契約すると10年は取り引きが続くからだ。為替レートは常に動くものなので、円安だから日本には売りたいとか、そういう考え方は一切ない。日本の企業とは長い付き合いをしたい。他の韓国の部品メーカーも同じはずだ」

新聞社の役員も日韓経済交流に関心

韓国から同行取材で来ていた韓国経済新聞のチャン・セヒ記者は韓国愛知経済交流会議が初の海外取材だった。チャン記者は取材を終えて次のように述べた。



韓国企業に同行し経済交流会議取材した韓国経済新聞のチャン・セヒ記者

「我が社の役員が韓国と日本の経済交流に非常に興味を持っていて、ぜひ若手に取材させたいということで私を派遣した。自動車産業を担当する同期の記者も日本で本田技研工業の取材をしている」

「韓国には日本に興味を持つ人が依然として多い。私の担当は流通と食品・飲料なので名古屋市内を歩いてスーパーにも行って見たかった。取材ばかりで自由時間がなかったのが残念。次は日本に遊びに来たい」

事務を担当した愛知県庁の森田利洋産業労働部産業力強化推進監は、韓国愛知経済交流会議を終えるに当たって「駐名古屋大韓民国総領事館やKOTRA名古屋貿易館とは長年協力関係を築いていて信頼があった。だからこそ経済交流会議を無事に開催することができた。愛知の魅力を世界に広めて、経済交流はもちろん愛知の観光産業も活性化させたい」語った。